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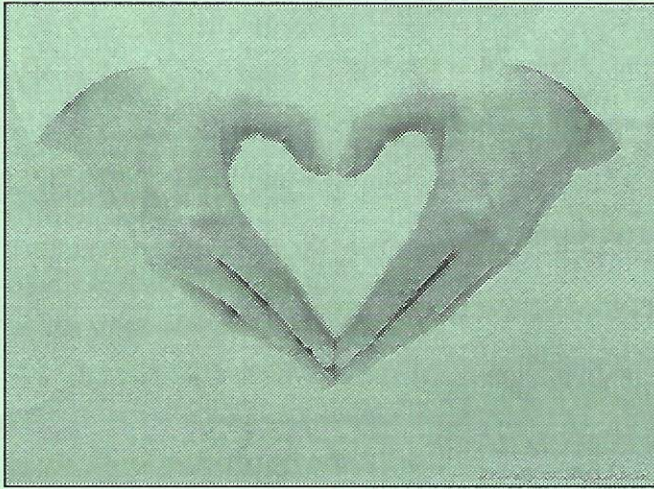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7주일

제35권 45호(나해) 2015년 10월4일

[묵상]



< 하느님이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신 약

영혼을 위한 약입니다!! -묵주기도

주 재 료 - 성모송 53, 주님의기도 6, 영광송 6, 사도신경 1

주 성 분 - 하느님의 은총

복 용 량 - 과다복용하기를 권장

복용횟수 - 하루 1회~ 4회

복수복용 - 가능하면 또 다른 기도나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와 함께 섭취하기 권장함

부 작 용 - 없음

유효기간 - 부패될 우려 없음

이상증상 - 과복용시 기쁨이 터져 나오거나,

갑자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거나,

애덕행위에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제 조 원 -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마리아님

품질보증 - 로마가톨릭교회

주의사항 - 어린이들의 손이 가까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합체) : (213)222-3168

연령회 (장애자 연합체)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소년 레지오 마리에	오전 9:30 오후 4: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씩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토요 특전 미사	(연)
	(생) 조혜진 리디아 & 조혜윤 테레사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현시영 요셉, 김상진 토마스,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김영식 & 김영자, 박근석 마리아, 진은란 아녜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정무연 엘리사벳, 민기남 모니카, 김종환 야고보, 정기범 베드로, 이종수 마틴, 이사범 로벨토 & 윤주경, 반치우 안셀모 & 반순례 안나
	(생)신순철 가브리엘, 심영인 사비나, 정애나세라피나 & 정에릭 & 정린다젬마 & 정엘리스 클라라, 우연성, 한정희 프랑카 수녀 & 최경애 프란체스카, 오창근 베드로 사제 & 김마누엘라 수녀 &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2,18-24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
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
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2,9-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
리라.○

복음 마르코(Mark)10,2-16<또는 10,2-12>

영성채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
게 주님은 좋으신 분.

가톨릭이란?

9.천주교의 새로운 가르침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예비신자'라고 부릅니다. 예비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존 신자들과 하나가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비신자들은 신자들이 누리는 영적 혜택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공식 경신례인 미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모임과 소공동체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의 장례 역시 세례 받은 신자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예비신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신앙 문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신부나 수녀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7	250	250
봉헌	264	259	264
성체	382	281	280
파견	364	321	321

좋은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이혼(離婚)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약속 그 이상입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因緣)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영겁(永劫)이라는 세월의 전생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겁이란 사망 십 리에 거자씨를 뿌려놓고 하늘나라 선녀가 3년마다 한 톨씩 집어가서 모두 거두어가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부부의 인연이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당신일까? 다른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같은 시대라도 만날 수 없는 지역에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인연’이라는 말 대신 하느님의 ‘섭리(攝理)’라고 말합니다. 그 만남을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이를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5-6)

둘이 함께 한 평생을 산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며,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고 이혼을 허락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혼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됩니다.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

제도 심각합니다.

결혼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요, 나쁜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천국을 위해서는 둘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은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만 준비하는 오늘의 세대가 안타깝습니다. 혼인성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들려주는 송나라 여인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찰흙 덩이로 나의 모습을 빚고, 당신의 모습을 빚습니다. 그것을 한데 짓눌러 뭉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찰흙 덩이로 나의 모습을 빚고 당신의 모습을 빚으면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짓눌러 뭉개지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만 허락된 특혜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도와주는 ME는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천국이 되는 결혼을 위해, ‘대·성·공·기’ 곧 대화와 성(性), 그리고 기도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가정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일찍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 조규만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희자 마리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 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1월9일(월요일)
- 대상 : 55세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선착순
- 회비 : \$30(1인), \$4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도착 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목주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310)781-0021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을 모읍니다

- 배운 청년회에서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10월까지).
-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 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 592-4739

◆주일학교 전진반 모집

- 수업시간: 저녁 7시 ~ 9시, 격주 수업
- 10월 7일(수요일) 등록마감
- 전진 1년반, 2년반 등록비: \$50

- 자격: 주일학교 9학년 이상
- 문의: 서정우 Francisco Xavier ☎(310)408-9070
-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오후 2시~3시3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강사 : 일호 박태홍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2016 미주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개최

- 주제 : LA한국교육원
- 참가대상 :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 기간 : ~ 10월 20일(화)
- 작품 제출처 :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os Angeles, CA 90005
- ※ 우편제출 - 소인 10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함

2. 2015년 제1회 한글학교 수기 공모전

- 대상: 한글학교 교사, 보조교사(TA), 학생, 학부모
- 내용: 한글학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소재의 수기
- 마감 : 10월 27일(화) e-mail: ksaaca@hotmail.com 제출
- 제출 방법:
 1. MS Word/ 12 font / 3page 미만(Cover Sheet 제외)
 2. Cover Sheet : 제목/한영이름/소속학교/ 신분(학생,교사, 학부모 등)/전화번호/e-mail
- 문의 : 213-700-9399 /103skcecks@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4일 * 토동1반 : 김밥 (\$4),
* 주일학교 : 떡볶이 (3학년)
- 10월11일 * 소공동체 : 짜장밥 (\$3),
* 주일학교 : 베이컨 핫덕 (10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상규 김 옥 김 은 김정선 김정엽 김종훈 김주량 김철민 박종열 변복순 성낙호 송호창 신순철 오영섭 육근주 이정태 이원형 이인석 이태옥 이형삼 장영진 정남형 정동호 정지숙 정혜영 조소영 주대중 최 일 최태훈 호경진	성전헌금	김 옥 김정선 김정엽 김주량 김철민 성낙호 송호창 신순철 오영섭 이인석 이형삼 장영진 정남형 정동호 정지숙 정혜영 주대중 최태훈
	합계:\$4,165		합계 : \$ 2,475
주일미사 헌금 :\$2,910		감사헌금 : 김지수, 김대우,성낙호(\$1,400)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밥하기보다 쉬운 글쓰기>무료강좌

미주가톨릭문인협회(회장:정찬열)가 시 수필 창작에 관심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 강좌를 실시합니다.

- 일시 10월 12일(월)7시~9시pm (매월 두번째 월요일)
- 회비 : 없음
- 주관 : 미주가톨릭문인협회
- 장소 : 한국 교육원(680 Wilshire Pl #102 L.A

*☎714-530-3111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 일시 : 10월13일(화일) 저녁7시
- 대상 : 전신자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지도신부
- 장소 : 성바실 천주교회본당
607 S. Kingsley Dr. LA,CA 90005
- 문의 :이정화 헬레나 ☎(323)899-3202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광자 엘리사벳 991-4838 10/6(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10/16(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엄혜은 도로테아 10/10(토) 6시
	2	윤정옥 설비아 909-557-7490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10/17(토) 10시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영희 아가다 10/16(금) 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10/13(화) 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조정선 마리아 10/10(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울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오세원 아타나시오 10/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이병우마리노 10/10(토) 6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755-6905 10/9(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0/16(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신혜정 로사 213-369-0687 10/17 (토) 12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10/13 (화)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34>

구한선 타대오
(1844~1866년)

구한선(具漢善) 타대오는 경상도 함안 미나리 골(현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던 그는 글을 많이 읽었는데,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는 어떤 요술에 빠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타대오는 우연히 천주교 신자를 만나 교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는 즉시 이를 받아들여 그로부터 교리를 배운 뒤, 성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런 다음 약 10년 동안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다가 리델(F. Ridet, 李福明) 신부의 복사로 선택되어 거제도 전교에 동행한 적도 있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발생한 뒤, 타대오는 리델 신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되었다. 이윽고 관장 앞으로 끌려나간 그는 갖가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또 옥에 갇혀서는 주요 교리를 설명한 글을 적어 관장의 부인에게 전하였다.

타대오의 글을 읽은 그 부인은 관장에게 그를 석방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 말을 들은 관장은 화가 나서 구한선 타대오를 옥에서 끌어내도록 하여 혹독하게 매질을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대오는 ‘아프다’는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에 관장이 화가 나서 ‘제대로 매질을 하지 못한다’고 형리 들을 꾸짖자, 형리 들은 ‘제대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더 때리면 그가 죽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관장이 이번에는 타대오를 향해 “어찌하여 ‘아프다’는 소리 하나 내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늙으신 어머니가 문밖에 있을 터인데, 만일 신음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이를 듣고 기절하실 것이므로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관장이 “그러면 어찌하여 천주교를 신봉하였느냐?”고 묻자, 타대오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므로 천주교를 신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모진 형벌을 당한 뒤에 타대오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형벌로 인해 7일 만에 선종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순교한 뒤 그의 이마에는 ‘품’(品)자 모양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이 고향 인근에 안장하였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햇별 한 줌] 평생의 동반자

대학원의 한 노교수가 수업이 끝날 무렵에 결혼한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칠판에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학생이 이름을 다 적자, 교수는 학생에게 그 20명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를 지우라 했습니다. 학생이 한 명의 이름을 지우자 교수가 또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하나 지우게나.” 학생은 교수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지우고, 결국 칠판에는 부모님과 남편, 자녀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의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다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 이름을 다시 지워 보게.”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다시 한 명!” 그녀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을 지우자 또다시 “한 명을 더 지워 보게.” 한동안 멍하니 있던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우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을 그친 학생에게 교수가 물었습니다.

“자네를 낳아 준 부모와 자네가 낳은 자식을 왜 지웠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구할 수 있는 남편을 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남겼는가?”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아이는 다 자라면 품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가톨릭 굿 뉴스

[교리상식] 「예비신자궁금증105가지」

사제는 언제, 어떤 색깔의 제의를 입을까요?

사제가 입는 제의는 전례 시기에 따라 보라색, 흰색, 붉은색, 장미색, 녹색 등 색깔이 다릅니다. 보라색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입는데 속죄,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 축일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성령 강림 대 축일과 순교자들 축일에는 붉은색 제의를 주로 입습니다. 연중 시기에 사제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 가톨릭출판사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거나, 때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병을 낫게 하기도, 병이 들게도 했습니다. 혹은 높은 데서 뛰어 내리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의 지역처럼 신화적 신앙과 마술 관습이 넘쳐나는 우상숭배의 이교적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요즈음 사람들이 의사나 사제를 찾아가듯이, 당시 사람들은 마술사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이방인의 마술 행위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예언자들은 마술사의 행위가 하느님을 거스르는 반종교적 행위이고 마술 행위는 헛됨과 기만이므로 끊임없이 고발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행위인 마술에 관해 알아보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기 17,7-23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주술을 걸어 병을 낫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관들이나 서민들 모두 마술사 시몬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필리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적을 행하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 소식을 접하고 필리포스를 찾아갔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8,4-13

얼마 후 사마리아 지방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예언 등 많은 기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을 보자 시몬은 무엇을 청했고,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대답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8,14-25

신앙을 갖는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예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은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현대인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과 큰 ()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사도 8,13)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을 받았다.” (사도 8,16-17)

우리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로또’라 표현하더군요.
또 어떤 이는 친구를 두고 ‘종합선물세트’라 말하던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관계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관계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벌칙 같은 존재만 아니라도 그게 어딘가요.

-이영 아네스-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발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미리안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늘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전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